

‘스포츠 대통령’ 체육회장 6파전...선거전 막 올랐다

이기흥·김용주·유승민·강태선·오주영·강신욱 후보...역대 최다 경쟁
다음달 14일 선거...3선 도전 이기흥 체육비리 등 의혹 해소 관건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체육인들의 마음을 잡아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24일과 25일 후보 등록을 마친 6명의 후보는 26일부터 내년 1월 14일 선거 전날까지 19일간의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기호 1번 이기흥, 2번 김용주, 3번 유승민, 4번 강태선, 5번 오주영, 6번 강신욱 후보는 연말연시 동창군의 기세를 뚫고 표밭갈이에 나선다.

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는 지난 23일 출마 회견에서 “체육회가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도외시하기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대한민국 체육의 변화, 체육인과 완성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회장 직무 정지를 받았던 이 후보는 수사받는 직위 채움 비리와 금품 수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의욕 시선을 해소할지가 선거전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출신의 김용주 후보는 선수와 지도자, 행정가를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용주 후보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체육청’ 신설과 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제 폐지, 시군구체육회 예산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회와 대한탁구협회장을 역임한 유승민 후보는 한국 체육의 미래를 바꿀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 자립성 확보를 위한 동반 성장 ▲ 선수 및 지도자 스포츠 커넥트 시스템 도입 ▲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젝트 ▲ 생활체육 전문화를 통한 선진 스포츠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중심 K-스포츠 ▲ 대한체육회 수익 플랫폼 구축 통한 자생력 향상 등 추진에 나선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기흥 후보, 김용주 후보, 유승민 후보, 강태선 후보, 오주영 후보, 강신욱 후보

BYN블랙야크그룹 회장이자 서울시체육회장을 역임한 강태선 후보는 대한체육회의 변화와 미래를 위한 ‘10대 약속, 20대 과제’를 제안했다.

강태선 후보는 ▲ 경기인·체육단체 처우 개선 지원 ▲ 체육회 전문 행정역량 강화 ▲ 2036 하계올림픽 유치 ▲ 국민·정부·체육단체 소통 강화 등의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6명의 후보 중 최연소(39세)자로 대한세탁타크로협회장을 지낸 오주영 후보는 ‘체육에 빛진 게 없는’ 깨끗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젊음과 패기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한다.

오주영 후보는 ▲ 체육행정 혁신 ▲ 엘리트체육 활성화 ▲ 체육시설 확충과 활용 개선 ▲ 생활체육 활성화 ▲ 심판 제도 개선 ▲ 체육 홍보와 대중화 등 혁신과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하키인 출신으로 단국대에서 후학을 가르친 학자인 강신욱 후보는 41대 체육회장 도전 좌절 이후 4년간 바둑 표심을 다져왔던 자산을 바탕으로 체육인들의 마음 잡기에 나선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 기간 많은 분을 만나 경청하는 한편 강력한 호소를 통해 공감을 끌어내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체육인들의 마음을 얻어 당선될지 주목된다.

한편 제42대 체육회장은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선거에서 2천300여명의 체육인들로 꾸려진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된다. /연합뉴스

‘별 보러 춘천 가자’ 프로배구 올스타전 티켓 오픈

내년 1월 4일 개최

프로배구 스타들의 열전이 펼쳐질 ‘도드람 2024-2025 V리그 올스타전’ 티켓 판매가 26일 시작됐다.

티켓은 경기가 치러지는 내년 1월 4일까지 한국배구연맹(KOVO) 홈페이지와 KOV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1인 최대 4매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번 올스타전은 강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며 K-스타팀이 A코트, V-스타팀이 B코트에

서 경기를 펼친다.

각 좌석은 1층 지정석(중앙석·서브석)과 2-3층 지정석으로 운영되며 1층 중앙석은 5만원, 서브석은 4만원에 판매된다. 2층과 3층 지정석은 각각 3만원, 2만5000원이다.

현장 매표는 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진행되고 온라인 판매 후 남은 좌석 및 일부 3층 1열 좌석에 한해 매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관중 입장은 경기 당일 오후 12시부터 가능하다.

암포 거레 방지 등을 위해 티켓 예매 취소 시 경

기일 기준 각 시점별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매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KOV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A1페퍼석 박정아(아웃사이드 히터)와 장위(미들블로커)가 이번 올스타전에 참여한다. 박정아는 김수지·이교은(이상 흥국생명), 강소희·임명옥(이상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V-스타팀, 장위는 김연경·신연경(이상 흥국생명), 표승주(정관장), 김다인·양효진(이상 현대건설) 등이 속한 K-스타팀으로 경기에 나선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빛고을 빛낸 대학부 우수선수 장학금

12개 종목 85명 선수 전달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배준석(조선대 2년)을 비롯해 한 해 동안 광주 지역을 대표해 활약한 우수 대학부 선수들이 장학증서를 받았다.

광주시체육회는 26일 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대학부 우수선수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대학부 우수선수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갑수 시체육회장, 조선대 김도부 오길현 감독과 대학부 우수선수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여 대상자는 태권도 배준석, 복싱 이해주(남부대 1년), 양궁 채진서(조선대 3년)를 비롯한 총 12개 종목, 85명의 전국대회 입상 선수들이다.

이들은 광주 대표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대회에서 활약해 지역의 위상을 드높인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 대학부 선수단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26일 대학부 우수선수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장학금은 개인별 경기력과 대회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됐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한 해 동안 학업과 운동 두 가지에 최선을 다해 준 대견스러운 선수들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025년 올해에도 광주를 대표해 활약하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 레슬링, 추계대학레슬링대회 금빛 활약

광주 레슬링 선수단이 ‘제35회 추계대학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임동호(조선이공대 2년)는 남자대학부 F86kg 결승에서 충북대 엄성현을 상대로 2-8로 뒤처지

다가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폴(Fall)로 역전승을 거두며 1위를 차지했다.

임정오(조선대 3년)는 남자대학부 G60kg 결승에서 경운대 배승연에 9-0으로 테크니컬 폴 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이어 남자일반부에서도 남구청 김승민(G67kg

)과 서영채(F74kg)도 각 체급 정상을 차지했다.

남구청 신용규(F57kg)와 박서영(WW57kg)은 각각 남·여일반부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조선대 안찬식(3년·G72kg)과 김찬영(1년·F79kg)은 남자대학부에서 각 체급 2위에 올랐다.

또 박민성(남구청·G77kg급), 최영선(조선이공대 1년·WW55kg), 김동준(조선이공대 1년·F86kg)은 이번 대회에서 각 체급 3위를 기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PGA 진출’ 윤이나 “신인왕·세계1위 목표”

2월 파운더스컵서 데뷔전 예정

새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에 뛰어드는 윤이나(사진)는 첫 시즌 잘 정착해 신인상을 받고 향후엔 세계랭킹 1위에 오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이나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꿈의 무대이자 골프 선수로서 가장 큰 무대인 LPGA 투어에 진출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면서 “철저히 준비해 신인왕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상금왕, 대상, 최저타수상 등 주요 개인 타이틀 3관왕에 오른 윤이나는 이달 11일까지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에서 열린 LPGA 투어 켈리파이(Q) 시리즈에서 8위에 오르며 L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Q시리즈 ‘수석’ 기대도 모았으나 이루지 못한 그는 신인왕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첫 시즌 성적 전망에 대해 “우승이라는 게 제가 원한다고 오지 않는 것을 잘 안다. 매 대회 최선을 다하는 게 먼저이며, 그러다 보면 우승과 신인왕 타이틀도 와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인왕 경쟁자 관련 질문엔 “많은 선수가 훌륭한 기량을 지니고 있다고 느껴서 어느 한 명을 찍기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 “가장 큰 경쟁자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아জে보다 발전한다면, 제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이겨낸다면 신인왕에도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고 답했다.

이어 윤이나는 “내년에는 잘 적응하는 게 목표이며, 장기적으로는 세계랭킹 1위에 꼭 올라서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욕심나는 일”이라며 큰 포부를 드러냈다.

남다른 장타력으로 존재감을 키웠던 윤이나는 미국 무대에 안착하려면 쇼트게임을 보완해야 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Q시리즈를 치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쇼트게임의 중요성이다. 한국과 다른 잔디에서 핀에 가까이 붙이고자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저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면서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면 미국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이나는 내년 1월 19일 출국할 예정이며, 2월 초 파운더스컵을 LPGA 투어 공식 데뷔전으로 삼

을 계획이다.

그는 “우러라와 온 고진영 언니와 같이 경기할 기회는 없었는데, LPGA 투어에서 함께 경기하며 많이 배워보고 싶다. 미국 선수 중에서는 넬리 코르다와 꼭 경기해보고 싶다”며 미소 지었다.

이어 “1년 동안 국내 팬들과 함께하며 행복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미국에 가면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 고민도 했지만, 제가 LPGA에서 잘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팬들께도 보람이자 행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팬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과거 박세리, 최나연, 신지아 등의 매니지먼트를 맡았고 현재도 LPGA 투어의 고진영, 박성현, 유해란을 관리하는 세마스포츠마케팅과 새롭게 손잡은 윤이나는 미국 델라웨어에 기반을 두고 현지 적응에 나선다.

새로운 스폰서십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쇼트게임 코치와 캐디 등도 고용할 참이다.

윤이나는 미국 진출을 선언하며 대한골프협회(KGA)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1억원씩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골프 발전을 위해 애쓰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씀드려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주니어 선수를 돕는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주니어 선수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1회 정기연주회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

일시 : 2025-01-15(수) 19:3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41